



밀알재활원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굽이굽이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밀알재활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 건물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이름 좀 써주세요.” 돌아보니 한 형제님께서 이름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내미십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놀라움을 감추며 찬찬히 이름을 써드리고 큰 소리로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꽃을 피우나 싶었는데, 다시 형제님께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살아요? 몇 살이에요?” 못 보던 사람이 방문하니 궁금하셨나 봅니다. 복도를 지나던 다른 분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면,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는지 저를 바라보며 방긋 웃으시고는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밀알재활원에는 이처럼 몸은 성장해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지적장애인 5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산하 시설로 1995년에 개원해 2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톨릭 정신에 따라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여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합니다. 시설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마트나 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을 바꾸고, 볼링장에 가서 볼링을 치는 등 다양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스타, 양계장 관리, 상품 포장 등 지적능력 정도에 따라 직업을 갖고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어 갖고 싶은 물건이나 옷을 사는 등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세 번째로 축제나 행사 등 지역사회 기관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설개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섭니다.

그 외에도 원예치료, 클레이교실, 건강댄스 등 시설 내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등산·볼링·영화 동아리 등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 각자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여성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별관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얼마 전 건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렵게 후원금을 모금해 짓다 보니 비용 부족으로 저렴한 자재를 사용했던 탓도 있겠고, 처음 2층으로 지은 건물을 2회에 걸쳐 증축한 이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가 급하게 보수한 흔적이 쉽게 눈에 띄고, 건물 바닥은 전체적으로 균열이 나 있습니다. 난방배관과 하수배관이 누수되어 지난 겨울에는 난방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장판과 벽지도 교체해야 하는 등 환경개선이 절실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고, 삶의 질 개선과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재활훈련에 전념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김지선 레지나 | 홍보국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후원 기간	2018년 10월 6일(토) ~ 11월 2일(금)
서울대교구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 및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

-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일과 입금액을 알아야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후원은 은행에서 위의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727-2034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 <http://cc.catholic.or.kr>(모바일 가능하며,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727-2034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 727-2510, 2506 바보의나눔